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회혼례도첩》의 찬안상(饌案床)과 향좌아(香佐兒)*

김 미 라**

목 차

- I. 머리말
- II. 《회혼례도첩》의 혼례 장면
 - 1. 왕실의 혼례 절차
 - 2. 《회혼례도첩》의 혼례 절차
- III. 《회혼례도첩》의 중퇴연 가구
 - 1. 왕실 동퇴연 가구
 - 2. 찬안상(饌案床)과 향좌아(香佐兒)
- IV. 맺음말

국문초록 | 《회혼례도첩》(덕수 6375)이 주목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22년 『조선 시대 사가 기록화, 옛 그림에 담긴 조선 양반가의 특별한 순간들』(박정혜 외, 2022)의 출간과 국립대구박물관 학술심포지움(2022) 등을 통해서이다. 화첩은 기록화로서 18세기~19세기경 조선의 사가(私家) 혼례를 구체적으로 시각화한 자료라는 점에

* 본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재원을 지원 받아 수행한 연구로(NRF-2022S1A5C2A02092180), 2023년 11월 24일 개최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정기학술대회 <조선시대 공예문화의 장면들>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했다.

** 金美羅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연구교수 mrjh7299@hanmail.net
투고일: 2024. 5. 11. 심사완료일: 2024. 6. 24. 게재확정일: 2024. 6. 26.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4.46..47>

서, 사료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본 논문은 《회혼례도첩》에서 ‘혼례 재현 장면’에 등장하는 가구’에 초점을 맞추어, 사가의 ‘혼례 의례용 가구’를 살펴본 것이다. 그동안 왕실 혼례에 관해서는 국가 의례서와 『의궤』를 중심으로 혼례 절차와 변천, 혼례 기물 등 다양한 각도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반면에 사가 혼례 특히 혼례에 쓰인 가구(家具)에 관해서는, 당시 형태와 명칭 등 상세한 기록은 없이 유물만 일부 전할 뿐이어서, 혼례 가구의 진설(陳設) 방법과 종류 등 그 실제 파악이 어려웠다.

회첩의 혼례 장면에서 등장하는 의례용 가구는 ‘찬안상’과 ‘향좌아’ 2건이다. 사가에서 당시 사용했던 혼례용 가구의 형태, 용도, 배설 위치가 확인되는 중요한 장면이다. 이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이 2건의 가구가 등장하는 장면의 혼례 내용, 그리고 그 안에 진설된 가구의 쓰임과 명칭, 형태의 특징이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 『의궤』, 『등록』 등 왕실 혼례기록과 이익, 정약용, 안정복이 기록한 사가의 혼례기록을 참고하였다.

먼저 혼인 60주년을 기념한 그림으로 혼례를 재현하는 모습이 담긴 《회혼례도첩》의 혼례 장면이 어떠한 절차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그 장면 안에 등장하는 ‘찬안상’과 ‘향좌아’의 쓰임과 형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의궤』 등을 통해 왕실 혼례용 가구의 종류와 배설(排設) 제작 형태를 확인하고, 왕실 사용 혼례 가구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는 《회혼례도첩》의 사가 혼례의 가구를 시각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사가 혼례용 가구의 특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논문을 통해 《회혼례도첩》에 등장하는 혼례 재현 장면은 ‘전안’, ‘교배동뢰’에 해당 된다는 것이 파악되었다. 《회혼례도첩》의 각 혼례 장면을 명명한다면, 이러한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찬안상’과 ‘향좌아’는 왕실과 사가에서 모두 사용한 혼례 가구로서 주목되는데, 그 형태도 왕실용과 사가용이 매우 흡사했고 같은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즉 《회혼례도첩》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혼례 가구인 ‘찬안상’과 ‘향좌아’는 왕실 혼례 가구를 그대로 차용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만 사가 혼례에서는 가구의 종류나 수량을 간소화하거나 생략했는데, 《회혼례도첩》을 통해 당시 시속(時俗)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어 | 혼례, 혼례가구, 가례(嘉禮), 목가구, 목공예, 상(床), 향좌아, 소반, 의궤

I. 머리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회혼례도첩》(덕수 6375)을 재점화 시킨 학술연구는 지난 2022년 국립대구박물관 심포지움에서부터 시작되었다.¹⁾ 심포지움은 회혼례도의 제작 배경과 시기를 살피고 그림에 등장하는 술잔과 복식, 병풍, 문헌과 회화사적인 견지에서 연구 발표되었다. 이를 통해 제작 시기는 18세기의 중엽 경에서 19세기 초로 추정되었다. 또 복식 연구발표를 통해 1760~1780년대로 좁히고, 주인공은 병조나 군영의 인물 혹은 높은 관직의 인물로 가설되기도 하였다. 문헌 연구를 통해서도 회혼례와 사제장의 주인공으로 압축해서 추적하는 시도가 진행되었고, 신랑이 짚고 있는 지팡이가 사제장의 지팡이가 아니라 정조에게 받은 구장(鳩杖)으로 보고, 홍익(洪億, 1722~1809)의 1794년 회혼례 장면으로 추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제작 시기와 주인공을 찾는 일은 앞으로도 남아 있는 과제이다. 하지만 정교하고 생동감 있게 묘사된 이 화첩은 당시 행사를 시각적으로 담아낸 기록화이며, 역사의 기초 사료라는 판단은 당시 모두가 일치하는 바였다. 그래서 대구 심포지움에서는 상세한 사실적 묘사를 통해서 화첩의 각 행사 공간 벽면을 장식하는 병풍 그림의 화풍을 읽어내고, 청화백자 향아리의 문양으로 그 제작 시기 추적도 가능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회혼례도첩》이 혼례를 시각화한 구체적이고 생생한 재현물이라는 점을 토대로 당시 사가(私家)의 결혼식에 사용된 ‘사가 혼례용 가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화첩은 총 5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논문에서 주목하는 장면은 초혼을 재현하는 장면으로 한정되며, 특히 혼례용 가구인 찬안상과 향좌아에 관한 것이다.

사가에서 혼례용 가구로 사용한 찬안상과 향좌아의 명칭, 형태, 쓰임과

1) 《회혼례도첩》 국립중앙박물관(덕수6375)에 대한 학술심포지움 “회혼례도첩의 문화사적 이해” 발표가 2022년 9월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열렸다. 「회혼례도첩의 문화사적 이해」(발표자료집국립대구박물관, 2022)

같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기록이 풍부한 왕실의 혼례를 살펴 그 원형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통 혼례의 규범을 실현한 왕실의 혼례와의 비교를 통해서, 찬안상과 향좌아가 등장하는 행례 장면이 혼례 중 어떠한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며, 그 안에 사용된 찬안상과 향좌아의 쓰임과 명칭, 형태가 왕실 가구와 비교하였을 때 어떠한 특징을 갖는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왕실의 혼례 과정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이를 《회혼례도첩》과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서, 회혼례의 별칭을 ‘중퇴연(重牢宴)’²⁾으로 쓴 이유를 확인하는 동시에 동퇴를 재현하는 중퇴연 속 가구 역할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논문에서는 찬안상과 향좌아가 등장하는 혼례 재현 행례(行禮) 내용에 대해, 문헌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회혼례도첩》은 문헌 기록의 혼례 장면을 충실하게 연출해 냈는데, 《회혼례도첩》의 기록화적 성격이 재확인될 뿐아니라, 구체적으로 묘사된 혼례용 가구는 당시 제작 형태를 알려주는 실증적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회혼례도첩》의 찬안상과 향좌아는 혼례용 가구로서, 사가의 혼례식에서 사용되었던 가구 형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그동안 전통 혼례는 왕실 혼례에 편중되어 연구되어 왔다. 『전례서』와 『의례서』, 『의례』에서 왕과 왕세자의 의주와 예악 그리고 사용된 기물의 규모와 형태, 재료에 관해 상세한 기록을 전하고 있어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었다. 반면에 사가의 혼례 특히 물품에 관해서, 형태와 종류 등 그 실제 파악이 어려웠고 자료 발굴도 쉽지 않았다. 그런데 이 《회혼례도첩》이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

2) 조선만의 회혼례 풍습과 전하는 회혼례도와 화첩을 밝혀 소개한 연구에서, 1648년(인조 26) 이구정(1568~1648)이 81세에 회혼연을 치르고 하객들이 지은 시를 모아, ‘무자중퇴경수시권(戊子重牢慶壽詩卷)’을 만들었다.(박정혜, 혼인한지 60년, 다시 치르는 혼례, 『조선시대 사가기록화, 옛그림에 담긴 조선양반가의 특별한 순간들』, 한국학중앙연구원, 2022, 170-209 쪽)

던 사가의 혼인 장면을 시각화하여 보여준다는 점에서, 자료로서 소중한 가치를 갖는다.

《회혼례도첩》 묘사 기록을 뒷받침 해주는 문헌은 성호 이익(1629~1690)의 『성호사설』 「가녀의(嫁女儀)」·「취부의(娶婦儀)」, 안정복(1712~1791)의 『순암집』 「혼례작의(婚禮酌宜)」³⁾, 정약용(1762~1836)의 『여유당전서』 「가례작의(嘉禮酌宜)」⁴⁾을 들 수 있다. 이 기록은 조선 후기 혼례의 시속(時俗)을 기록한 대표적인 문헌으로서도 중요하다. 18세기~19세기의 혼례 풍습을 전해주는 귀중한 자료들인데, 《회혼례도첩》의 묘사와 기록에서 전하는 혼례 내용을 세부적으로 비교하고자 하였다.

논문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II장에서 《회혼례도첩》에 연출되는 혼례 장면을 확인하고, 그중 찬안상과 향좌아가 등장하는 장면의 혼례 절차를 문헌기록과 함께 상세하게 살펴서 각 목조기물의 쓰임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먼저 혼례 행례(行禮)의 원형이 되는 국가 혼례를 살펴보면서, 혼례 중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치르는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동뢰’였음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왕실과 사가 혼례의 동뢰 절차를 비교하여서 《회혼례도첩》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각화된 동뢰 재현 장면 속의 가구 쓰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II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회혼례도첩》과 왕실의 혼례 기록을 비교함으로써, 동뢰를 위해 배설되었던 가구의 규모 차이를 확인하고, 《회혼례도첩》에 특별하게 등장하는 찬안상과 향좌아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왕실 혼례가구를 차용하면서도 시속(時俗)을 따랐던 사가 혼례용 가구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순암집』 권 14, 雜著 「혼례작의」.

4) 『여유당전서』 제 3집, 예집 제 23권 「가례작의」.

Ⅱ. 《회혼례도첩》의 혼례 장면

문헌 기록에 의하면, 혼인한 지 6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여 자손들이 헌수(獻壽) 하는 의식을 중심으로 해서 여는 잔치를 ‘중퇴연’이라고 불렀다. 승정원일기 1794년 (정조 18) 3월 12일에 의하면, “...창순(昌順)이 이르길 ‘그저께 홍역 집안에 중퇴연에 가서 보니 근력이 진실로 좋았다’ 이에 상(上)이 이르시길 회혼례에도 선생이 있으니 진실로 희귀하다...”⁵⁾라고 하였다. 중퇴연은 회혼을 축하하는 의식으로, 초혼을 재현하는 의식인 회혼례도 포함한 용어로 사용되었던 듯 하다. 회혼례의 시작 경위와 잔치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다.⁶⁾ 다만 회혼례에서는 하객의 인사와 술을 올리는 의식뿐 아니라, 초혼을 재현하는 행사가 함께 진행되었다는 기록이 전한다.⁷⁾ 《회혼례도첩》의 총 5장면 중 초혼을 재현하는 장면은 ‘전안’과 ‘교배·동퇴’가 등장한다.

이 장에서는 《회혼례도첩》의 혼례 장면을 왕실과 비교하여 상세하게 살펴 보고자 한다. 이 작업을 통해서, 회혼례가 포함되는 연회를 ‘중퇴연(重牢宴)’이라고 명명한 이유를 확인하는 동시에 동퇴를 재현하는 중퇴연 속 가구

5) 昌順曰, 再昨洪憶家重牢宴, 亦爲往見云, 以此觀之, 筋力誠好矣 °上曰, 回婚禮亦有先生, 誠稀貴矣 °

6) 초혼을 재현하는 회혼례의 시작은 명확하지 않다. 유몽인의 『어우집』 기록을 통해 17세기 초로 추정되기도 한다. 이종목, 「회혼을 기념하는 잔치, 중퇴연(重牢宴)」, 『문헌과 해석』 46, 2009, 61~63쪽.; 혹은 축수하는 술잔을 올리는 의식만을 하다가 혼례 의식을 재현하는 의식이 추가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윤효정, 「《회혼례도첩》을 통해 본 헌수의식과 수상(壽觴) 평(觥)」, 『석당논총』 87, 2023, 138~140쪽.)

7) 『성호전집』 3권 詩, [차조첨지(次趙僉知) 석제(錫悌) 중퇴연운(重牢宴韻)] “자연이 기원하고 축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山祈海祝莫非宜)/이 일은 응당 장차 숭상하고 기록으로 전해지리니(此事應將傳史垂)/정거가 구로회에 참여했던 춘추이고(鄭據行年參會歲)/유강이 부인과 신선 되었던 연세라네(劉綱有婦共仙時)/ 출사하여 이미 비단 관복을 자랑했고(登朝已詔緋成服)/회혼 자리 마련해 다시 합환주를 마셨네(設席重看翫作脔)/축수하는 대열에 못 가 본 게 한스러워(恨殺曾違前壽列)/깊은 정성 담으려니 시 쓸 능력 없어라(誠深無筆可揚詩)”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역할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아래에서 전통 혼례는 6례(六禮)라고 알려져 있는데, 화첩에서 ‘전안’과 ‘교배·동뢰’만이 등장하는 이유를 살펴보기로 한다(도판 1).

〈도판 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회혼례도첩》



1. 왕실의 혼례 절차

조선은 국초부터 국가 정비를 위해 국가 의례와 예악을 정비하고 유교 국가임을 천명하게 된다. 1474년(성종 5)에 『국조오례의』, 『국조오례의서례』를 편찬하여 길례, 가례, 빈례, 군례, 흥례의 다섯 범주로 나누어 의식 절차인 의주(儀註)와 사용 기물을 각각 기록하였다. 국초 국가의례서인 『국조오례의』의 가례 ‘의주’는 『국조오례통편』(1810), 『대한예전』(1897)에 이르기까지 내용에 변화가 없이 기록되었고, 현재 남아 있는 17세기부터 조선말까지 『의궤』에서도 반복적인 의주 내용만이 등장한다.

초기 기록인 『국조오례의』를 중심으로 왕실의 가례 의주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표 1). 왕비와 왕세자빈을 맞이하는 의식은 ‘납채·납장·고가·책비(책빈)·친영·동뢰’의 육례(六禮)가 혼례 절차의 핵심이다. 그 외 육례를 마치고 나서, 왕세자빈을 들이는 의주에서는 시부모에게 인사하는 조현례(朝見禮), 공주가 시집가는 경우는 현구고례(見舅姑禮)를 치르고 이어서 각각 하례(賀禮)와 회례(會禮)의 의식으로 이어졌다. 사가 혼례와 가장 가까운 의식이었을 ‘종친 문무관 1품 이하 혼례(宗親文武官一品以下昏禮)’는 ‘납채·납폐·친영’의 3단계로 압축된다.⁸⁾ 그리고 친영 이후에는 신부가 시부모를 뵈고, 사당에 고함 등의 의식이 이어 진행된다.

조선 왕실 가례는 중국의 『의례(儀禮)』와 『가례(家禮)』를 참조하여 만들어졌다.⁹⁾ 『의례』 「사혼례(士婚禮)」의 주요 혼례 절차는 ‘납채·문명·납갈·납장·청가·친영’의 6단계이다. 그리고 『가례』는 ‘의혼 납채 납폐 친영’의 4단계이다.¹⁰⁾ 앞서 언급한 조선의 왕비와 왕세자빈을 들이는 의주 역시 6단계이지만, 『의례』 「사혼례(士婚禮)」의 6단계와는 약간 다른 구성과 순서를 보인다.

8) ‘종친 문무관 1품 이하 혼례’는 왕실의 6례에서 ‘납채·납폐·친영’ 3단계로 축약된 것인데, 혼례 의식 절차의 축약은 신분고하와 연관되어 있다. 왕실 안에서도 왕세자보다 낮은 신분인 ‘왕자와 왕녀의 혼례’의 경우는 6례가 아닌 ‘납채·납폐·친영·동뢰’ 혹은 ‘납채·납폐·전안·동뢰(『국혼정례』)’로 축약되는 것과 같다.

9) 조선 초기 왕실혼례는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唐, 宋, 明의 예제가 참고되었고, 이에 따라 통상 육례(六禮)로 구성되었다. 그 기본은 『의례』 「사혼례」에서 비롯된 것이다. (백주연, 「조선 초기 王室婚禮의 정비와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95, 2020, 21쪽, 35쪽.

10) 장병인, 『조선 왕실의 혼례』, 조선왕실문화총서 7, 민속원, 2017, 18~24쪽; 『국역 의례-관례 혼례편』, 한국인문고전연구소, 2021; 『역주 가례언해(家禮諺解)』, 「가례언해 제 4권 혼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4, 55-102 쪽.

【표 1】 조선과 중국 『의례』, 『가례』의 혼례절차

조선 문헌				중국 문헌
『국조오례의』		『국혼정례』		『가례』
납비의 (納妃儀)	납채·납정·고기· 책비·친영·동뢰	왕비	납채·납정·고기· 책비·친영·동뢰	의혼, 납채, 납폐, 친영
왕세자납빈의 (王世子納嬪儀)	납채·납정·고기· 책빈·친영·동뢰	왕세자	납채·납정·고기· 책빈·친영·동뢰	
왕자혼례 (王子昏禮)	납채·납폐·친영· 동뢰	대군 왕자	납채·납폐·전안· 동뢰	
왕녀하가의 (王女下嫁儀)	납채·납폐·친영· 동뢰	공주 옹주	납채·납폐·전안· 동뢰	
종친문무관1품 이하 혼례 (宗親文武官 一品以下昏禮)	납채·납폐· 친영 (*친영은 전안·동뢰를 포함)			
『순암집』 「혼례작의(婚禮酌宜)」		『여유당전서』 「가례작의(嘉禮酌宜)」		『의례』
납정·청기. 고묘(告廟:생략 可).전안·교배·동뢰		납채·문명·납길·청기. 납정·친영·동뢰		납채·문명·납길 납정·청기·친영

그런데 【표 1】의 ‘납비의’와 ‘왕세자 납빈의’를 보면, 왕실만의 특수 의례인 책비 혹은 책빈의 의식과 납정에 포함될 수 있는 고기(告期) 절차를 생략한다면, 결국은 ‘납채·납폐·친영(혹은 命使奉迎)·동뢰’의 4단계의 절차로 요약된다. 즉 ‘종친문무관 1품 이하의 혼례’의 ‘납채·납폐·친영(전안동뢰포함)’과 동일하다. 다시 말해 ‘납채·납폐·친영·동뢰’가 혼례에서 빠질 수 없는 가장 핵심 절차인 것이다. 중국과 비교할 때, 혼례가 진행되기 전에 양가의 혼인을 확인하는 ‘의혼’을 제외한다면, 『의례』 「사혼례」 보다는 『가례』와 가깝다.

사가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다는 『증보사례편람』의 경우도 『가례』를 주된 내용으로 삼은 것이고, 『가례언해』 까지 출간된 것은 『가례』의 영향이 광범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¹¹⁾ ‘납채·납폐·친영·동뢰’ 중에서도 양가의 혼인을

확인하는 납채와 납폐는 신랑과 신부 당사자보다는 양가가 주된 역할을 한다. 신랑과 신부가 중심이 되어 치르는 혼례는 결국 친영과 동뢰로 한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친영은 신랑이 신부를 신랑 집으로 맞이하는 의식을 말하는데, 시속에서 친영은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조선 후기까지 그 사례가 흔하지 않았고, 시택으로 가는 신행(新行)이 자식을 낳은 후에야 비로소 이뤄지기도 했다.¹²⁾

즉 국가 의례를 모범으로 한 사가의 혼례에서 신랑과 신부가 처음으로 만나는 날 치르는 핵심적 의식은 바로 ‘신행을 뺀 친영 의식’ 즉 신랑이 신부집으로 찾아오되, 신부를 데리고 본가로 돌아가는 신행없이, 신부집에서 ‘동뢰’를 치르는 것이다. 『국조오례의』 ‘중친문무관 1품 이하의 혼례’에서 친영은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찾아와서 신부를 데리고 본가로 돌아가 신랑 집에서 동뢰를 치르는 전 과정을 지칭하고 있다. 사가의 혼례는 국가 의례서 혼례 기록 중 모범이 되는 ‘중친문무관 1품 이하의 혼례’ 절차에서, ‘친영’ 중 ‘신행’을 빼고 신랑이 기러기를 신부의 부모에게 전하는 ‘전안례’를 하고 동뢰연을 준비해 둔 장소에서 신부와 마주서서 교배례를 한 후 동뢰를 순차적으로 치르는 것을 이어 행하였던 것이다. 조선 후기 시속의 혼례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순암집』 「혼례작의(婚禮酌宜)」도 【표 1】에서 보듯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본가로 가는 예는 없지만 그 외 ‘전안, 교배, 동뢰’는 별도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각 절차의 내용은 무엇인지 국가 혼례기록을 통해 보면 【표 2】와 같다. 표는 『국조오례의』의 ‘중친문무관 1품 이하의 혼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1) 노인숙, 『가례와 한국의 예학』, 문사철, 2020, 262~263쪽.

12) 이익(1681~1763)의 「가녀의」에서는 친영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고, 1760년 사위 권일신을 맞이할 때 기록한 안정복의 「혼례작의」 역시 친영은 하지 않으며, 풍속이 지켜지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고 하였다. 반면 임하필기를 지은 이유원이나 이항로(1792~1868), 전우(1841~1922) 등 친영을 시행했던 예외적인 사례도 전하고 있다.

【표 2】 『국조오례의』 「종친과 문무관 1품 이하의 혼례」

절차	내용
납채(納采)	○ 신랑이 혼인을 청(請)하는 납채의 서신을 신부 측에 전달하고, 신랑과 신부 측이 이를 각각 사당에 고함.
납폐(納幣)	○ 폐백(명주나 베)을 신랑측에서 신부측에 줌.
친영(親迎)	○ 신랑이 초계(醮戒)를 행한 후, 말타고 신부 집으로 감. 신부 역시 초계를 행함. ○ 전안: 신랑은 생기러기 혹은 나무를 새겨서 만든 기러기를 신부측에 줌. ○ 친영: 신랑과 신부는 신랑의 집으로 감. ○ 교배: 신부가 재배(再拜)하고 신랑은 답배(答拜)함. ○ 동뢰: 3차례의 술과 안주(肴)를 먹음. (궤주祭酒 후 술- 안주-술-안주-술(합쥬)-안주)
부현구고(婦見舅姑)	○ 신부가 시부모를 뵈. 신부가 조율반과 단수반을 올림.
부현사당(婦見祠堂)	○ 신부가 사당을 알현함.

《회혼례도첩》에서 묘사한 혼례 장면 역시 신랑과 신부가 만나게 되면서 치르는 가장 핵심적 혼례 의식인 ‘전안’과 ‘교배·동뢰’가 그려졌다. 동뢰 장소에서는 교배례도 함께 이뤄졌기 때문에 이 장면은 ‘교배·동뢰’의 장면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림에는 ‘동뢰 음식차림상’도 비교적 상세히 확인된다. 그림에서 동뢰 행위가 연출되고 있는 않지만, 동뢰를 위한 음식차림상이 ‘동뢰’를 예고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회혼례도첩》에 묘사된 ‘전안’ ‘교배·동뢰’를 18-19세기 사가의 혼례기록을 근거로 당시 사가 혼례 행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회혼례도첩》의 혼례 절차

이 장에서는 문헌 기록과 화첩에 묘사된 ‘전안·교배·동뢰’를 비교하고자 한다. 화첩의 묘사 내용은 18세기 안정복의 『순암집』 「혼례작의」와 1810년 정약용의 『여유당전서』 「가례작의」의 문헌 기록과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도판 1).

《회혼례도첩》 중 ‘전안·교배’의 묘사는 「혼례작의」 내용과 일치하며, ‘동뢰’ 장면 묘사는 「가례작의」 기록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먼저 「혼례작의」는 혼례의식에 대해 납채부터 동뢰에 이르는 중국의 『의례』 절차를 거론하고,¹³⁾ 당시 속례(俗禮)에서는 ‘납장·청가·고묘(告廟·생략하기도함)·전안·교배·동뢰’만이 행해진다고 하였다. 다음은 「혼례작의」의 ‘전안·교배’ 기록과 《회혼례도첩》 묘사를 비교한 것이다.

① 전안(奠雁)

건물 밖에 전안례를 예고하는 기력아비(鴈夫)와 함께 신랑의 행렬이 묘사되어 있다.(도판 1-①) 맨 앞에는 징인(徵人) 4명이 앞서서 걷고, 그 다음으로 기력아비, 다음은 노신랑이 지팡이를 짚으며 출입문을 향해 걸어오고 있다. 이 장면은 전안례를 예고할 뿐 실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혼인 후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였으므로, 전안례 주체가 되는 신부의 부모가 생존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안례는 신랑과 신부가 처음 만나기 전, 행사의 시작을 기념하는 의절로서 치러진 것이다. 전안례가 초혼처럼 실행되진 않았겠지만, 의복과 인원 구성은 초혼의 모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혼례작의」의 ‘기력아비’ 묘사를 보면, ‘시속에서 한사람에게 나무 구슬 갓끈이 달린 검은 갓을 쓰고, 검은 도포를 입고 검은 신발을 신고서 기러기를 좌수(左首)로 하여 안고 걸어가게 하는바, 이름을 ‘기력아비[鴈夫]’라 하며,

13) 납채·문명·납갈·납장·청가·고가·초자·친영·전안·교배·동뢰

색실로 기러기의 머리를 감는다. 만약 관복(冠服)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길복(吉服)만을 써도 좋다.’고 하였다. 《회혼례도첩》의 전안례 장면의 기록아비 옷차림도 기록과 같음이 확인된다.

『국조오례의』에 의하면 왕비와 왕세자빈을 들이는 의주에서는 생기러기를 사용하고 ‘종친문무관 1품 이하 혼례’에서는 생기러기를 쓰되, 없으면 나무를 새겨서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민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익은 「취부의」에서 이르길, ‘나무로 만들어 빌려 쓰는 것은 잘못이며, 비단보로 싸야 한다’는 내용은 당시 전안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¹⁴⁾

기력아비 앞의 청포의 옷을 입은 두 사람에 관한 것도 「혼례작의」에서 그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시속에 따른 하인 중에서 초동(弗童)을 뽑아 초립(草笠)을 씌우고 청포(靑袍)를 입힌 징씨(徵氏) 한쌍을 세운다.’¹⁵⁾ 이것은 『탁지지』의 왕실 혼례에서 ‘대군이나 공주, 왕주가 6인의 징씨를 두었다’는 내용과 비교해 볼 수 있다. 화첩에서는 4명의 징씨가 신랑을 인도하고 있는데, 「혼례작의」에서는 신랑을 인도하는 징씨를 2명 둔다고 했던 것과 견줄 때, 《회혼례도첩》의 주인공인 노신랑의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② 교배(交拜)

교배례는 신부와 신랑이 마주하여 절을 하는 것으로 중국의 『가례』에는 있지만 『의례』에는 없다. 조선의 『국조오례의』, 『탁지지』에서 왕세자부터는 교배석이 등장하지만, 왕의 가례에는 교배석이 등장하지 않는다. 1702년(숙종 28)에 숙종과 인원왕후 김씨의 혼례기록인 『숙종인원후가례도감의궤』에서 동회연을 위해 왕과 왕비가 마주 서는 의주에도 교배 기록은 없다.¹⁶⁾

14) 이익, 「취부의」, 지(贄), ‘刻木爲鴈。俗皆借用。甚不可。裹用綵袱。’

15) 「혼례작의」기록에는 여자집에서 보내어 인도하는 징씨는 홍포를 입는다고 하였는데, 그림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

16) 『숙종인원후가례도감의궤』(奎13089), “同牢儀。王妃大次於殿下所御殿閣外之西南

왕의 교배석이 확인되는 것은 의궤 중 1802년 『순조순원후가례도감의궤』에서부터 ‘교배석’이 등장하며 동퇴연 도식(圖式)에 교배석이 배설된 그림이 나타난다. 【표 3】을 보면, 왕의 교배례는 국초 법제서에도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 왕실 혼례 규범에서 ‘왕의 교배례’는 19세기 이후부터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왕세자 이하부터는 국초부터 교배례가 있었으며, 민간에서 ‘교배례’는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3】 『국조오례의』 교배례

왕실 혼례	동퇴(同牢) 중 교배례
납비의(納妃儀)	-
왕세자납빈의(王世子納嬪儀)	신부 재배/ 신랑 재배(再拜)
왕자혼례(王子昏禮)	신부 재배/ 신랑 답배(答拜)
왕녀하가의(王女下嫁儀)	신부 재배/ 신랑 답배
종친문무관1품이하 혼례 (宗親文武官 一品以下昏禮)	신부가 재배/ 신랑 답배

『가례』를 기본으로 한 『증보사례편람』(1900년)를 보면, 교배석에 신랑과 신부석에 의자를 마주 보도록 위치해 두었다. 하지만 조선의 사가에서 실제로 의자를 두기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혼례작의」에서 ‘양쪽에 자리를 깔았는데 시속에서는 만화방석을 깔았으며 없더라도 구애받지 않는다’고 하여 의자를 두기보다는 주로 만화방석을 깔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속 장면(도판 1-②) 역시 만화방석을 깔아둔 모습으로 「혼례작의」의 기록과 같다.

向鋪褥席如常…王妃詣闕至興化門… 王妃降輦尙宮導… 殿下揖王妃以入尙寢先設褥席於室內殿下褥席在東西向王妃褥席在西東向…尙儀跪啓請揖王妃卽席殿下揖王妃入室卽席西向王妃卽席東向尙儀跪 啓請坐…(왕비는 동퇴의를 위해 궐로 들어오고 전하가 읍하면 실(室)로 들어와 서향하여 앉고 왕은 동향하여 앉는다)”

③ 동뢰

교배례가 끝난 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동뢰가 치러졌다. 《회혼례도첩》에서 신랑과 신부 사이에 동뢰를 위한 음식차림상이 놓여져 있는데, 동뢰연을 위한 가구의 배설이다. 회혼례 중에 진행되는 동뢰임으로, ‘중뢰’라고 명칭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지만, 사가의 초혼 기록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대로 ‘동뢰’로 명칭하기로 한다. 이 장면은 정약용의 『여유당전서』 「가례작의」의 문헌 기록에서 그 근거를 찾아낼 수 있다.

동뢰는 희생을 신랑과 신부가 함께 나누어 먹는 의식을 말한다. 신랑과 신부 사이에 음식상 아래에는 쟁반 그릇이 얹어져 있는 형태로 놓인 소반이 4개 확인된다(도판 1-②, 도판 3-③).

먼저 동뢰에서 치뤄지는 절차에 대해 조선의 국가 의례, 중국의 혼례 기록을 비교해 보면 【표 4】와 같다.

『국조오례의』, 『의례』의 기록을 통해 조선 왕실의 동뢰 절차를 살펴보면, ‘동뢰연에서 술을 채주(祭酒, 술을 조금 따라내는 제사 의식)하고 나서 마신 후, 탕은 제사하지 않고 그대로 마신다. 그리고 2·3차례에는 채주 없이 술을 마시고 각 차례 마다 탕 즉 안주를 먹는데 3번째 술을 마실 때는 표주박을 갈라 만든 합근(合罇)을 사용한다.’라고 하였다.

중국의 『의례』 「사혼례」 동뢰연은 간적(肝炙)과 술을 모두 고수례(간적을 흔들고 술을 조금 붓는 제사 의식)를 하고, 간적과 술을 먹는다. 2차례, 3차례는 술을 제사한 후 마시는데 이때 간적, 즉 안주는 제공되지 않는다. 『가례』는 신랑과 신부 모두 찬과 술을 고수례한 후 먹고, 이후 술을 2차례 더 마시되 안주는 없는 의식이 이뤄진다.

즉 『의례』의 「사혼례」와 『가례』, 『국조오례의』에서 동뢰연의 주요 의식인 술과 안주(탕)을 먹는 방법에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례』 「사혼례」와 『가례』는 모두 안주가 한 번만 제공되는 것과 비교하여,

조선의 국가 혼례는 3차례 모두 안주가 제공된다.

【표 4】 조선과 중국의 문헌기록 동퇴 절차

	조선(『국조오례의』, 『의례』)		중국(『의례』, 『사혼례』)		중국(『가례』)	
	술	안주	술	안주	술	안주
1	제사○ 술○	안주 ○	제사○ 술○	제사○ 안주○	제사○ 술○	제사○ 안주○
2	술○	안주 ○	제사○ 술○	X	술○	X
3	술○	안주 ○	제사○ 술○	X	술○	X

조선의 관찬 사료기록에서 동퇴 의주 기록은 앞서 언급한 내용 외에 상세한 정보는 추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때 주목되는 것이 바로 정약용의 「가례작의」이다. 기록에는 동퇴 절차 중 이 ‘3차례의 술을 마시는 삼윤(三醢) 의식’의 과정을 상세하게 남기고 있다. 관찬사료에서는 찾아 볼 수 있는 동퇴 절차의 상세한 내용일뿐 아니라, 사가의 혼례 절차를 알 수 있는 자료로서 매우 흥미롭다. 게다가 바로 《회혼례도첩》의 혼례 장면에서 그것을 그대로 묘사해 내고 있다는 사실은 사가 혼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대목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회혼례도첩》 동퇴 장면에 4개 접시를 각각 올린 소반 4개가 신부쪽에 그려져 있는 것이 확인된다(도판 1,3-㉓:실선원 표시). 실제 의례에서는 그중 2개는 신랑 쪽에 배설되어야 적합하지만, 회화에서 정확한 기록을 하기 위한 화가의 특별한 조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음식차림상을 중심으로 볼 때, 흑색의 소반 2개와 이를 관리할 2명의 여인을 신랑 공간으로 이동시킨다면, 음식상이나 주인공인 노신랑을 가릴 것이기 때문이다. 화면 앞을 열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소반을 모두 신부 쪽으로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화첩에서 음식 차림상을 기준으로 신부 공간을 보면 위쪽과 아래쪽에
 흑색의 소반이 2개씩 총 4개가 놓여 있다. 그리고 각 소반 위에는 윤두가
 낮은 접시 형태의 그릇을 얹어 놓은 형태로 묘사되어 있다. 아직 삼윤 의식이
 시작되기 전 교배례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소반 위의 접시
 용도는 문헌에서 다음과 같이 등장한다.

정약용의 「가례작의」

예를 돕는 두 명의 여인이 각각 접시 하나를 들어 탁자 밑에 두면, 이
 접시에 밥을 덜어 고수레 한다. 이어서 다시 접시를 탁자 앞에 두고, 이번에는
 술을 고수레 한다. 그리고 술을 맛본다. 이때 3번의 술을 마시는 것은 모두
 근(罇)을 사용한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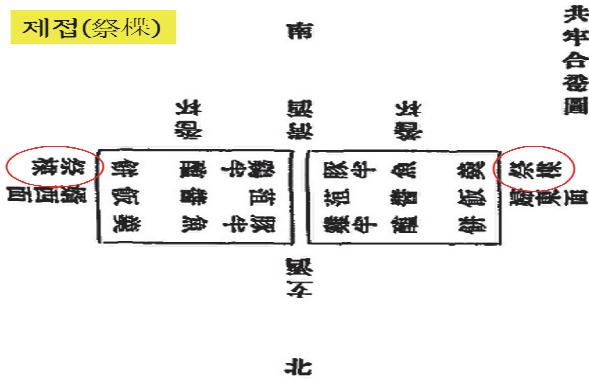
간적이나 탕 대신 밥을 접시에 덜어 고수레하고 이어 술을 접시에 부어
 고수레 하며, 이어 술을 2차례 더 마시는 것으로 삼윤의식 즉 동뢰를 치른
 것이다. 술과 밥을 모두 고수레하는 것은 【표 4】의 『의례』 「사혼례」나 『가례』
 와도 흡사하다.

즉 소반 위에 놓인 각각의 접시는 바로 술과 밥을 제사할 때 사용된 것이며,
 신랑과 신부용으로 각각 2개씩 마련해 둔 것이다. 정약용의 「가례작의」 ‘동뢰
 연 도식’에 제접(祭楫)이 확인되는데(도판 2), 바로 고수레를 위한 접시를
 표시해 둔 것이며, 《회혼례도첩》 동뢰 장면에서 신랑과 신부를 위한 각각의
 제접을 소반 위에 위치해 둔 것이다.¹⁸⁾

17) 女御二人, 爲之佐食, 各執一楪, 措于卓下 夫取飯祭之, 婦亦如之 (○案: 古禮饌列, 與此不同, 今且從俗)

贊者告“三飯”, 乃告“三醕” 三醕之禮, 贊者取盞杯酌酒, 以授女御, 使授嬙, 婦又. 進二楪, 措于卓前. 嬙祭酒, 婦亦如之; 嬙啐酒, 婦亦如之 (○案: 古禮, 初醕 再醕皆用爵, 三醕乃用盞 今三醕皆用盞者, 從俗, 又從簡也)

18) 안정복의 「혼례작의」의 동뢰연 의식은 “술을 올릴 때는 종자가 탁자 위에 있는 잔을 가져다 술을 따라서 신랑과 신부에게 나누어 올린다. 모두 술을 조금 땅에 부어 채주(祭酒)하고 안주를 든다. 또 술을 따르면 신랑이 읊하고 신부가 들어서



〈도판 2〉 정약용, 『여유당전서』 「가례작의」

그런데 《회혼례도첩》의 소반과 쟁반 용도에 관한 기록은 「가례작의」 외에 다른 기록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당시 시속의 혼례 풍속을 기록한 안정복의 글에서도 역시 소반과 쟁반은 등장하지 않는다.

안정복의 「혼례작의」

술을 올릴 때는 종자가 탁자 위에 있는 잔을 가져다 술을 따라서 신랑과 신부에게 나누어 올린다. 모두 술을 조금 땅에 부어 채주(祭酒)하고 안주를 든다. 또 술을 따르면 신랑이 읊하고 신부가 들어서 마시는데 술을 땅에 붓지 않고 안주도 들지 않는다. 다시 근배(樽杯)를 취하여 신랑과 신부 앞에 나누어놓고 술을 따른다. 신랑이 읊하면 신부가 들어서 마시는데 술을 땅에

마시는데 술을 땅에 붓지 않고 안주도 들지 않는다. 다시 근배(樽杯)를 취하여 신랑과 신부 앞에 나누어놓고 술을 따른다. 신랑이 읊하면 신부가 들어서 마시는데 술을 땅에 붓지 않고 안주를 들지 않는다”라고 하여 『가례』의주와 같다. 「혼례작의」가 시속을 충실히 반영하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회혼례도첩》의 동뢰연 절차는 회혼례이기 때문에, 특별히 진행된 의식이었을 가능성도 재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선 후기 인물 정약용 역시 당시 시속의 동뢰 의식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 혼례 풍속을 재현했다는 것에 무게를 실을 수 있다.

붓지 않고 안주를 들지 않는다.

《회혼례도첩》에 등장하는 소반과 그 앞에 각각 서 있는 여인들을 안정복의 「혼례작의」에 대응하여 본다면, 신랑과 신부에게 술과 안주를 전해주기 위한 쓰임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국조오례의』의 ‘납비의(納妃儀: 왕비를 들이는 의주)’를 비롯하여, 동궐에서 술과 음식을 전해주는 방법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술이나 탕을 전하는 의주가 특별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에 《회혼례도첩》에서 소반과 그 위에 쟁반을 얹어 놓은 듯한 기물의 상세한 묘사, 그리고 각 소반마다 예를 돕는 여인의 배치는 특별한 의식을 준비한 모양새이다. 이것은 정약용의 「가례작의」에서 분명하게 기록한 ‘제접’을 풀이해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도판 2).

다음은 신랑과 신부 사이에 놓여있는 음식상에 놓인 상차림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도판 1-③). 결론부터 말하면, 《회혼례도첩》의 상차림은 『의례』 「사혼례」와 시속의 음식상 차림을 혼합한 형태로 볼 수 있다. 【표 5】는 문헌에서 보는 음식 상차림 내용이다.

【표 5】 동궐연 음식차리상

	『의례』 「사혼례」 부부동궐공찬 (夫婦同牢共饌)	『성호전집』 「가녀의」	안정복, 「혼례작의」	정약용, 「가례작의」	『가례』, 동궐
1	석(腊)	계(雞)	계(雞)	계(雞)	음식을 차린다 (부연설명없음)
2	돈(豚)	돈(豚)	육(肉)	돈(豚)	
3	어(魚)	어(魚)	어(魚)	어(魚)	
4	장(醬)	과일	조(棗)	장(醬)	
5	저(菹)	엄채(淹菜)	채(菜)	저(菹)	
6	해(醢)	식해(食醢)	해(醢)	해(醢)	
7	읍(漚)	과일	율(栗)	갱(羹)	
8	서(黍)	미식(米食)	병(餅)	병(餅)	『증보사례편람』

9	직(稭)	맥식(麥食)	면(麵)	반(飯)	과일과 나물 위주의 상차림
---	------	--------	------	------	-------------------

【표 5】에 따르면, 이익은 중국 『의례』의 9품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보사례편람』에서 보는 과일을 포함시켰으며, 안정복과 정약용도 『의례』의 9품을 따르지만 시속의 음식 차림을 혼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문헌을 통해서 볼 때 조선 후기 사가에서 치러진 혼례는 중국의 『의례』 혹은 『가례』와 ‘조선의 풍습’이 혼합된 양상으로 행해졌던 것이다.

정약용, 「가례작의」에 의하면, ‘공회합근례(共牢合簠禮)’ 즉, 동되 차림상을 「사혼례」의 9품 음식을 기본으로 하고 시속에 따라 석(腊, 토끼고기) 대신에 닭을 놓고, 서와 직 대신에 떡과 밥을 놓는다고 하였다. 토끼 고기 대신 닭을 놓는다는 것은 성호 이익의 「가녀의」¹⁹⁾ 안정복의 「혼례작의」의 ‘닭은 통째로 삶아 둔다’²⁰⁾ 내용과도 통한다. 그리고 안정복의 「혼례작의」에서는 당시 시속의 음식 차림상에 대한 추가 기록도 등장한다.

안정복의 「혼례작의」

동되연 음식상에 대추, 밤, 나물, 국수와 같은 음식도 추가되었고(……)음식상에 유밀과(油蜜果)를 놓는데, 가난한 집 형편에는 맞지 않을뿐더러 예(禮)에도 근거가 없는 것이다. 고려 충선왕(忠宣王)이 원(元) 나라에 장가들 때 썼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옛 풍습인 듯한데, 어떤 사람은 승가(僧家)에서 부처에게 공양하는 여습(餘習)에서 나왔다고도 한다. 지금 간혹 한과(漢果)로 대신하기도 하는데, 한과란 이름이 어째서 붙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콩가루를 꿀에 버무려서 만들고 사화봉(絲花鳳)을 씌워서 미관(美觀)을 돕는다.

19) “지금 토끼를 꼭 얻을 수 없는 경우라면 계생(雞牲)과 같은 종류로 대체하여 통째로 삶아 익힌 것을 사용하더라도 안 될 것이 없다”

20) 鷄用全體 代古兔脂 從俗用鷄

안정복 기록에 따르면, 당시 혼례 음식상에 대추와 같은 과일과 유밀과도 추가되었음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음식차림의 기본은 『의례』를 따랐으며, 『가례』를 바탕으로 한 조선 후기 혼례서인 『증보사례편람』²¹⁾에서 말하는 ‘과일과 나물을 위주로 한 상차림’으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가례』가 조선후기 혼례의례서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가 혼례의 음식차림상은 『의례』의 영향이 짙게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회혼례도첩》에 등장하는 동뢰 음식 차림상에 ‘삶은 닭’과 양쪽으로 화려하게 쌓아 올려 만든 안정복이 언급한 ‘사화봉 장식을 한 유밀과’의 묘사가 확인된다. 즉 《회혼례도첩》이 시속의 혼례 기록을 충실히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도판 1-③).

Ⅲ. 《회혼례도첩》의 혼례 가구

1. 왕실 동뢰 가구

《회혼례도첩》의 제작 시기는 18세기 중후반~19세기 초로 추정되고 있다. 같은 시기 왕실의 동뢰에서 사용된 가구 내용은 『탁지지』(1788), 조선후기 『국혼정례』, 『의례』, 『등록』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²²⁾ 『탁지지』에 왕과 왕세자, 왕자와 공주 등 왕실 각 신분층에서 사용한 혼례 가구 종류를 정리한 기록이 등장한다. 【표 6】과 같다(도판 3-①,②).

21) 18~19세기 『사례편람』과 신증(新增)이 추가된 것이 『증보사례편람』인데, 혼례의례서로서 민간에서 가장 많이 참고된 서적으로 알려져 있다. 李緯 著, 황필수 편술, 문옥표·이충구 역, 『증보사례편람』,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29-30쪽.

22) 조선시대 혼례 의식과 비교되는 음식차림상이 확인되는 것은 가장 이른 시기 연향도감으로, 1630년(인조) 대왕대비 인목왕후 김씨에게 올린 연향 기록 『풍정도감의궤(豐呈都監儀軌)』이다. 연상, 좌협상, 우협상, 면협상, 소선과 대선, 찬안상이 등장하여 동뢰연에 등장하는 음식상과 동일하다. 이것은 숙종과 영조 진연의궤에서도 찾을 수 있다.

【표 6】에 의하면, 신분에 따라 가구의 수량, 칠의 종류, 크기에 차등이 확인된다. 가구 수량은 왕> 왕세자> 대군과 공주> 옹주> 왕자의 순이다. 왕과 왕세자의 혼례에는 10건 이상이 쓰였고, 대군과 왕자, 공주, 옹주의 가례에는 3~4건의 가구가 사용되었다. 그런데 실제 행사기록인 『가례등록』을 보면, 옹주의 경우에도 19세기 특별한 경우에는 9건 13점의 가구가 사용되기도 하였다(표 7). 예외적인 경우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고, 여기에서는 왕실에서도 신분에 따라 혼례의례용 가구의 수가 분명히 달랐다는 점에만 집중하기로 한다.

【표 6】 왕실의 동례연 배설 가구 종류

『度支志』 왕실 동례 사용 가구					
대전가례 (大殿嘉禮)	1	倭朱紅漆饌案床二坐	왕세자가례 (王世子嘉禮) -世孫嘉禮同-	1	黑漆饌案床二坐
	2	倭朱紅漆香佐兒一雙		2	香坐兒一雙
	3	倭朱紅漆長床二坐		3	黑漆長卓二坐
	4	倭朱紅漆香案床二坐		4	黑漆香案床二坐
	5	唐朱紅漆低足床八坐		5	黑漆高足床六坐
	6	倭朱紅漆樽臺一雙		6	黑漆樽臺一雙
	7	倭朱紅漆大四方盤二立		7	黑漆大四方盤二立
	8	倭朱紅漆中圓盤六立		8	黑漆中圓盤六立
	9	倭朱紅漆行果盤六立		9	黑漆行果盤六立
	10	倭朱紅漆大酒亭一坐		10	黑漆小酒亭一坐
	11	倭朱紅漆小酒亭一坐		총	10건 31점
	총	11건 34점			
대군가례 (大君嘉禮) -世子衆子嫡嘉 禮同-	1	黑漆大四方盤二立	왕자가례 (王子嘉禮) -世子衆子庶嘉禮同-	1	宴床四坐
	2	龍丹漆香佐兒一雙		2	左右所排床二坐
	3	黑漆高足床一坐		3	阿架床一坐
	4	黑漆低足床二坐		총	3건 7점
	총	4건 7점			
공주가례	1	黑漆大四方盤二立	옹주가례	1	龍丹漆香佐兒一雙

(公主嘉禮) -郡主嘉禮同-	2	龍丹漆香佐兒一雙	(翁主嘉禮) -縣主嘉禮同-	2	黑漆大四方盤二立
	3	黑漆高足床一坐		3	黑漆高足床一坐
	4	黑漆低足床二坐		4	黑漆低足床二坐
	총	4건 7점		총	4건 7점

〈도판 3〉 기록을 통해 보는 신분에 따른 동퇴 가구 배치

<p>①『순조순원후가례도감의궤』 (1802) 동퇴연 가구배치 중앙에 찬안상 2개 배치 (*중앙 큰 노란점선 표시)</p>	<p>②『복은공주가례등록』 (1830) 신랑석신부석 대사방반 (*사각 표시)</p>	<p>③《회혼례도첩》 -혼례용 가구 찬안상 향좌아 흑칠반 (*원 표시)</p>
		

다음은 동퇴 가구의 칠 종류이다(표 6, 표 7). 칠은 왕의 가례는 붉은 칠 중에서도 가장 고급 칠인 왜주홍칠(倭朱紅漆)을²³⁾ 하였고, 왕세자는 흑칠(黑漆), 왕세자 이하는 흑칠 혹은 질이 떨어지는 붉은 칠로 추정되는 용단칠(龍丹漆)의²⁴⁾ 가구를 사용한 것으로 명확히 분리된다. 물론 예외의 경우는

23) 김미라, 「왜주홍칠의 수입과 활용」, 『석당논총』 85, 2023, 86~93쪽.

24) 1786년 『문효세자예장도감의궤(文孝世子禮葬都監儀軌)』(奎 13921)에 의하면, “服玩 函一長二尺一寸廣一尺六寸二分高七寸八分外黑眞漆內龍丹漆用禮器尺豆錫粧飾又 釘...”라고 하여 문효세자를 위한 복완함의 겉은 흑진칠을 하고 내부에는 ‘용단칠’을 하였다. 비슷한 시기 왕과 왕비의 복완함의 경우, 1757년 『정성왕후국장도감도청의

있어서, 『숙선옹주가례등록』(1804) 이하의 옹주와 공주의 가례의 아가상(阿架床)에 당주홍칠이 확인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표 7). 【표 7】의 가구 중 동뢰 가구 외에 조현례와 헌구고례에 쓰인 사방반에는 당주홍이나 왜주홍 같은 붉은 칠만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시부모를 만나는 예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위계가 높은 신분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함이며, 자신들의 혼례용 가구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표 7】 『가례등록』의 대군, 옹주, 공주의 동뢰 배설 가구

『가례등록』		신 분	연(年)	동된 가구	조현례/ 헌구고례 사방반
K2-2661 (장서각)	연잉군관례등록 (延昞君冠禮膳錄)	숙 종 서 자	1712 (숙종 38)	黑漆同牢宴床	朱紅四方盤
				黑漆四方大盤二立	
				黑漆低足床二坐	
				黑漆高足床一坐	
				4건 6점	
K2-2730 (장서각)	화길옹주가례등록 (和吉翁主嘉禮膳錄)	영 조 서 녀	1765 (영조 41)	同牢宴所用交拜席 橫一	唐朱紅漆 小小四方盤
				左右所排床二坐	
				同牢宴所用阿架床	

례』(奎13589-v.1-2), 1776년 『영조국장도감도청의례』(奎13581-v.1-2), 1800년 『정조국장도감의례』(奎13634-v.1-4) 등에서 복완함에 “外黑眞漆內塗紅絹” 즉, 겉은 흑진칠을 하고 내부는 붉은 비단인 홍초를 발랐다고 하였다. 세자빈의 장례인 1718년 『단의빈예장도감의례』(奎13572)도 복완함에 겉면은 흑칠을 하고 안에는 “內塗紅絹”라고 하여 역시 붉은 비단을 발랐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문효세자 복완함에 내부에 칠한 용단칠은 붉은 칠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복완함의 내부에 바른 붉은 비단 대신, 문효세자 복완함에 붉은색의 용단칠을 하였던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1767년(영조 38) 2월 19일에 의하면, ‘친경을 행하는데 있어서 중궁전의 석장(지팡이)에 용단칠을 쓰는 것이 너무 질박하다’는 기록이 있다. 즉 ‘용단칠’은 붉은색이긴 하지만, 왕실에서 왕과 왕비 사용 기물에 주로 사용되는 왜주홍칠 혹은 당주홍칠과 같은 주홍보다 질이 떨어지는 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K2-2727 (장서각)	청연군주가례등록 (淸衍郡主嘉禮謄錄)	사 도 세 자 1녀	1765 (영조 41)	—	唐朱紅漆 小小四方盤
				黑漆同牢宴床四座 (黑漆低足床二)	
				4건 8점	
				交拜席入盛櫃一部 左右所排床二 同牢宴所用阿架床 — 黑漆同牢宴床四 (黑漆低足床二) 4건 8점	
K2-2702 (장서각)	은언군, 은신군 혼례의례 (恩彦君冠婚禮儀軌)	사 도 세 자 서 자 들	1767 (영조 43)	左右所排床二 阿架床一坐 (尙衣減院除) 宴床四坐 黑漆大四方盤二立 (減) 黑漆高足床一坐 (減) (黑漆低足床二坐代以 龍丹) 5건 11점	倭朱紅漆 小小四方盤
K2-2725 (장서각)	청근현주가례의례 (淸瑾縣主嘉禮儀軌)	사 도 세 자 서 녀	1772 (영조 48)	同牢宴床二 (低足床二) 高足床一 2건 3점	唐朱紅漆 小小四方盤
K2-2651 (장서각)	숙선옹주가례등록 (淑善翁主嘉禮謄錄)	정 조 서 녀	1804 (순조 4)	左挾床 同牢宴高足床四坐 右挾床 香串之香佐兒 (龍丹漆)具	倭朱紅漆 小小四方盤

				香童子香佐兒具	
				四方盤 二 (龍丹漆 혹은흑칠, 四面長二尺邊與一 寸足高一尺五寸四 面刻太平花)	
				가구수량에서제외 (滿花方席)_	
				低足床	
				花樽床	
				阿架床 (唐朱紅漆酒樽所用)	
				9건 13점	
K2-2640 (장서각)	명온공주가례등록 (明溫公主嘉禮謄錄)	순 조 1녀	1823년 (순조 23)	左挾牀	倭朱紅漆 小小四方盤
				同牢宴高足牀四坐	
				右挾牀	
				香串之香佐兒具 (香佐兒一雙龍丹漆)	
				香童子香佐兒具	
				四方盤 二 (四面刻太平花,全廣 長二尺二寸/全漆六 合五夕每漆二合五 夕)	
				가구수량에서제외 (滿花方席)_	
				低足牀	
				花樽牀	
				阿架牀(唐朱紅漆)	
				9건 13점	
K2-2643 (장서각)	복온공주가례등록 (福溫公主嘉禮謄錄)	순 조 2녀	1830년 (순조 30)	左挾牀	倭朱紅漆 小小四方盤
				同牢宴高足牀四坐	
				右挾牀	

				香串之香佐兒具 (香佐兒一雙龍丹漆)
				香童子香佐兒具
				四方盤 (四面刻太平花,全廣 長二尺二寸)
				가구수량에서제의 (滿花方席)_
				低足牀
				花樽牀
				阿架牀(唐朱紅漆)
				9권 13점

마지막으로 가구의 크기는 <도판 4>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왕과 왕세자의 가례에서 신랑과 신부 각각의 자리에 찬안상을 둔다. 왕이나 왕세자의 찬안상은 ‘상(床)’을 사용한다. 그런데 『복온공주가례등록』(1830)을 보면(도판 3-②), ‘흑칠대사방반(黑漆大四方盤)’을 신랑과 신부의 찬안상 자리에 각각 두었다. 【표 7】의 『숙선옹주가례등록』 이하에서도 모두 대사방반을 확인할 수 있다. 대개 ‘상’은 ‘반(盤)’보다 큰 규모로 제작된다.



<도판 4>는 『의례』와 『등록』에 등장하는 왕과 왕세자가 사용했던 찬안상과 그 찬안상 위에 올렸던 대사방반 그리고 【표 7】에서 언급했던 1804년(순조 4) 정조의 서녀 가례에서 찬안상 대신에 사용했던 흑칠대사방반의 크기를 함께 비교하였다.²⁵⁾ 다음과 같다(도판 4).

25) 『정조효의후가례청도청의궤』(奎13114-v.1-2), “饌案床, 長三尺五寸, 廣二尺四寸, 高一尺.”

『순조순원후가례도감의궤』(奎13122-v.1-2), “大四方盤 方廣二尺邊兒一寸足高五寸 足廣一尺五寸各面刻太平花倭朱紅漆用禮器尺”

『숙선옹주가례등록』(K2-2651), “四面長二尺邊與一寸足高一尺五寸四面刻太平花”

<도판 4> 기록에서 보는 찬안상과 대사방반의 크기

	『정조효의후 가례청도청의궤』(1762)	『순조순원후 가례도감의궤』 (1802)	『숙선옹주 가례등록』 (1804)
	찬안상	대사방반	대사방반
도식			그림 없음
사용자	왕과 왕세자	왕과 왕세자	왕세자 이하
상판 (가로세로)	3척5촌, 2척 4촌 (길이 약100.5cm, 너비 약72cm)	2척 (약 60cm)	左同
변죽	없음	1촌 (약 3cm)	左同
다리 높이	1척 (약 30cm)	5촌 (약 15cm)	1척 5촌(약 45cm)
조각	없음	4면 태평화 조각	左同
배설위치	신랑석1, 신부석1	각) 찬안상 위	각) 찬안상 대체

<도판 4>에서 당시 세자위였던 정조의 가례의 흑칠찬안상의 상판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각각 100.5cm 72cm으로, 전통 소반의 일반 상판 면적의 4배 이상이다. 같은 문헌의 같은 장소 즉 동뢰에 사용된 고족상(高足床)은 높이가 약 90cm(高二尺九寸)였다. 즉 ‘상’이라는 것은 반과 비교해서 상판의 면적과 높이가 큰 규모로 제작되는 가구였다.

왕이나 왕세자의 찬안상 위에 배설되는 대사방반의 크기를 <도판 4>에서 찬안상과 비교해보면, 사방반의 면적은 찬안상면의 반(半)정도로 작은 면적이다. 이렇듯 ‘상’은 ‘반’보다 넓거나 높은 규모로 제작되었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궤』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구분이다.

사방반은 공주와 옹주 가례에서 찬안상 대신 사용되거나, 왕과 왕세자의 가례에서 찬안상 위에 배설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표 6】에서 왕과 왕세자

의 가례의 가구에도 대사방반이 포함된 것이 확인된다. 찬안상 위에 널찍하게 제작된 대사방반(大四方盤)을 올리고 그 위에 음식기를 진설했던 것이다. 이렇듯 왕과 왕세자의 가례에는 찬안상을 두고 그 위에 사방반을 올려서 2중으로 가구를 배설하였던 반면에, 그 이하의 신분에게는 찬안상보다 규모가 작은 사방반만 두거나 사방반을 생략한 찬안상만을 사용하였다. <도판 4>의 『숙선옹주가례등록』에서 보면, 옹주는 찬안상 자리에 찬안상 없이 ‘대사방반’만 사용하였고, 그 높이는 왕과 왕세자의 찬안상 위에 배설한 대사방반과 같은 규모였다.²⁶⁾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왕실에서 ‘혼례용 가구의 수량, 칠의 종류, 상판의 크기와 높이’는 신분에 따라 차등을 가지고 가구를 다양한 형태로 배설하였던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회혼례도첩》의 교배와 동뢰가 이뤄지는 공간에 등장하는 가구 형태와 그 특징을 왕실 가구와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찬안상(饌案床)과 향좌아(香佐兒)

《회혼례도첩》 혼례 재현 장면에서 등장하는 가구는 ‘찬안상’과 ‘향좌아’, 그리고 검은 칠의 소반이다. 그중 의례용가구로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찬안상’과 ‘향좌아’이다(도판 5, 도판 6). 이 2종류는 앞서 본 왕실 동뢰 가구 종류에도 등장하며, 화첩에 표현된 형태는 『의례』 「도설」의 형태와

26) 사방반의 칠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왕의 경우 찬안상이나 사방반에 붉은 주홍칠을 쓰지만, 왕세자의 경우는 찬안상과 사방반에 흑칠을 한다. 그리고 왕세자 이하의 왕자 등에는 찬안상을 생략하고 사방반을 쓰는데 역시 흑칠을 한다. 그런데 시부모를 만나는 조현례(朝見禮) 혹은 현구고례(見舅姑禮)는 특별하다. 왕세자는 물론이거니와 대군과 공주 등 모두 ‘왜주홍칠소소사방반(倭朱紅漆小小四方盤)’이나 ‘당주홍칠소소사방반(唐朱紅漆小小四方盤)’과 같이 축소형 사방반 형태에, 흑칠보다 위계가 높은 붉은 칠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즉 윗사람의 위계에 따른 존중을 물품의 ‘칠’로도 표현했다는 것이다. (【표 7】 참조)

흡사하다. 《회혼례도첩》의 혼례가구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가 혼례가구가 시각적으로 확인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혼례 가구가 왕실 가구의 형태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흥미롭다.

왕실 가구와 흡사하다는 점에서 《회혼례도첩》에 혼례 장면에 등장하는 가구를 왕실 가구 명칭을 따라 ‘찬안상’과 ‘향좌아’로 명칭하기로 한다. 사가 혼례 문헌 기록의 가구 명칭을 보면, 찬안상은 ‘탁’, ‘음식 놓는 도구’로만 나타나지만, 향좌이는 안정복의 「혼례작의」에서 ‘향좌아’라고 하여 왕실의 가구 명칭을 그대로 등장하고 있다.

① 찬안상 (饌案床)

《회혼례도첩》에서 신랑과 신부가 마주한 사이에 높은 사각의 연회테이블이 하나 놓였는데, 천으로 씌워져 있고 그 위에는 갖가지 음식이 차려져 있다(도판 5-②). 바로 찬안상이다. 왕실 혼례에서는 신랑과 신부에게 각각 하나씩의 찬안상을 두도록 하였다. 『의궤』의 동뢰 도식(圖式)에서도 찬안상은 신부석과 신랑석에 각각 표시되어 있다(도판 3-① 노란점선원 표시). 왕실과 민간의 가구 배설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시속에서 찬안상을 하나 두었던 것을 두고, 이익의 「가녀의」²⁷⁾에서부터 안정복과 정약용에 이르기까지, 예를 따르지 않는 ‘시속의 폐단’이라는 지적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 찬안상을 하나만 사용했던 것은 조선 후기 사가혼례에서 이미 오래된 풍습이었던 것이다.

찬안상은 넓은 사각 상판 아래 다리가 달리는 연회용 테이블로서, 비단을 씌워 광두정으로 박아서 배치하였다. 왕의 가례에서는 찬안상 제작에 왜주홍

27) “지금 사람들은 반드시 중간에 한 개의 탁자를 설치함으로써 ‘희생을 같이 먹는다는 의미 [同牢之義]’에 맞추었다. 그러나 부부는 체(體)가 나란하기 때문에 남편이 상생(上姓)을 쓰면 아내도 똑같이 상생을 쓴다. 이것이 바로 희생을 함께 한다는 것이지, 어찌 남편이 중대한 혼례를 치르면서 하나의 탁자에서 같이 먹을 리가 있겠는가”

칠과 같은 고급 칠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형태도 화려하게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상세한 형태를 알 수 있는 기록은 등장하지 않는다. 『의궤』는 대부분의 행사품에 대해 크기, 형태의 기록을 남겼음에도 찬안상에 관한 기록은 등장하지 않는데, 그것은 신조(新造)하기보다는 상의원에서 진배하여 사용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의궤』에 찬안상 채색 도설이 전하고 있지만, 비단보에 덮여 있는 형태로만 나타나서 목조가구 형태는 확인되지 않는다. 찬안상의 형태 그림과 크기가 기록된 것은 『정조효의후가례청도청의궤』이 확인된 유일한 예로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 후기 식반(食盤: 소반)에 비해 4배 정도의 상판 크기를 하고 있다. 사용할 때는 비단보를 덮어 사용하였다.

1651년(효종 2년) 『현종명성후가례도감의궤』에서 현종은 세자 신분으로 가례를 치렀기 때문에, 흑칠의 찬안상을 썼다. 그 위에는 비단보를 덮었는데 기록에 따르면, 찬안상건(饌案床巾)은 ‘다홍노주주로 만드는데, 앞섶은 초록 노주주로 건양에 맞춰 만들고, 천을 이에 꿰맬 때는 홍향사를 쓰고, 상 위에 좌면지 1장을 깎다.’²⁸⁾ 라고 하였다. 다홍과 초록의 고급 비단을 사용해서 테이블보를 만드는데, 다홍을 먼저 길게 덮고 그 위로 초록 비단을 짧게 늘어뜨리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의궤』의 채색 그림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내용은 다른 『가례도감의궤』에서도 반복적으로 기록되며, 찬안상 뿐 아니라 다른 연회테이블에서도 붉은색과 초록의 이중 테이블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회혼례도첩》의 찬안상을 보면, 초록으로 내려뜨려진 비단 아래로 좁은 띠가 늘어져 있는 것이 확인된다(도판 5).

찬안상 테이블보에 ‘좁은 띠 모양’의 깃을 내려뜨린다는 기록이 『의궤』에 처음 나타나는 것은 1762년 『정조효의후가례청도청의궤』이다. 다음과 같다.

28) 『현종명성후가례도감의궤』(奎 13071), “多紅潞洲紬, 衿草綠潞洲紬見樣裁作, 縫造紅鄉絲四邊(濟用監), 座面紙二張(長興庫)”

찬안상건(饌案床巾)

붉은 비단 (찬안)상건 2건에 들어가는 소입재료는 홍정주 11폭으로 각 폭의 길이는 1척, 섶은 초록수주로 하는데 길이 7척 8촌이다. 홍향사 2전이 들어간다. 회승은 2건이 들어간다.²⁹⁾

‘회승’ 즉 좁은 띠 2건을 준비했다고 명시했다. 『의궤』에서 좁은 띠를 구체적으로 이름한 것은 1762년 기록이지만 좁은 띠를 늘어뜨리는 비단보 형태는 조선 전기 불교회화에서도 나타난다. 일본 후쿠오카(福岡) 혼가쿠지(本岳寺) 소장 <석가탄생도>을 예로 들 수 있다. <도판5-①>의 <석가탄생도>에서 정반왕 공양(供養) 음식상을 보면, 붉은색과 초록색의 연회테이블보를 덮은 넓은 상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다. 그리고 테이블보에는 좁은 띠 2개가 명확히 그려져 있다. 《회혼례도첩》의 혼례에 등장하는 찬안상보와 같은 형태이다. 이를 통해 좁은 띠가 내려오는 연회 테이블보는 꽤 이른 시기부터 사용이 시작되었으며, 그 쓰임도 혼례뿐 아니라 불교 행사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회 테이블 위를 덮은 비단보일 뿐이지만, 그 형태적 특징은 불교와 조선 국가의례와의 연관성 혹은 대외관계로까지 넓혀볼 수 있는 실마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테이블보는 조선말 채용신의 <평생도첩>에서도 상세한 묘사로 등장하고 있다(도판 5-③). 조선 전(全)시기에 이러한 연회테이블보가 유행했던 것이다. 그 흥미로운 전개와 영향 관계에 관해서는 숙제로 미뤄두고 여기에서는 사가 혼례 행사에 사용된 찬안상 테이블보에만 한정하여 보기로 한다. 《회혼례도첩》 찬안상 테이블보의 형태는 『의궤』 등 왕실 혼례 자료에서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던 구체적 자료로서 눈여겨 볼만하다.

29) 『정조효의후가례청도청의궤』(奎 13114), “紅絁牀巾二件所入, 紅鼎絁十一幅各長一尺, 衿草綠水絁, 長七尺八寸。紅鄉絲 二疋。回繩二件(淸用監)”

〈도판 5〉 찬안상의 상건(床巾)과 사방반의 배설

찬안상의 상건/사방반 배설(<석가탄생도>)		
①<석가탄생도> 조선전기(15~16세기) 福岡 本岳寺	②《회혼례도첩》 18~19세기 국립중앙박물관	③<평생도 병풍> -혼례장면 채용신(1850~1941) 국립중앙박물관(건희 4091)
		

왕실의 동뢰 가구 배설【표 6】과 《회혼례도첩》의 가구를 비교해 본다면, 먼저 그 가구 수량에서 차이가 난다. 왕의 가례에서는 무려 11건의 가구가 등장하지만, 화첩에서는 3건의 가구만이 등장하고 있으며, 같은 쓰임의 가구는 찬안상과 향좌아의 단 2건이다. 그리고 왕실의 동뢰에서는 특별히 찬안상 위에 ‘사방반’을 올렸다.³⁰⁾ 그 배설 형태는 앞서 본 <석가탄생도>에서 보인다. 공양상 위에 사각 형태의 넓고 붉은 ‘사방반’이 올려져 있고 그 위에 음식 그릇이 놓였다. 이 붉고 넓은 판 형태의 불교의례용이 왕실용으로 사용된다면 그 형태는 <도판 4>의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궤』의 도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왕실 혼례 중 왕과 왕세자의 혼례에서, 찬안상 소용의 ‘대사방반’은 너비가 2척 정도였다. 이것을 찬안상 위에 올린다면, <석가탄생도> 공양 음식차림상의 테이블 위에 올린 붉은 사방반의 배설 형태와 흡사했을

30)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궤』, 동뢰연기명에 의하면, “왜주홍칠 대사방반 2립(사용원 찬안상 所用)”이라고 하여 대사방반은 찬안상에 올려두는 용도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것이다. 그런데 사가의 혼례 기록인 《회혼례도첩》의 찬안상 위에는 사방반이 생략되어 있다.

《회혼례도첩》의 사가 혼례 찬안상과 왕실 혼례 찬안상을 비교해 볼때, 다음의 내용을 알 수 있다. 왕실의 찬안상 배설은, 신랑석과 신부석에 각각 마련하여 2개를 배설하였고, 사가에서는 하나만 두었다. 두 번째는 찬안상을 덮은 테이블보는 왕실과 사가가 같은 형태였는데, 특히 《회혼례도첩》에서 테이블보의 좁은 띠 형태는 『의궤』에서 보다 혼례테이블 상보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조선 전(全)시기에 유행하던 테이블 상보 형태로 추정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찬안상의 사방반 사용 유무이다. 왕실 혼례에서 사방반은 중요한 기물이었다. 『의궤』에서 특별히 도설 기록을 남겨 형태와 크기를 규정하였고, 붉은 왜주홍칠을 하여 위계를 표하는 화려한 장식을 하였다. 왕실 동궐에서는 사방반에 음식 그릇을 올리고, 이것을 찬안상 위에 배설하였다. 반면에 사가의 혼례의 찬안상에는 사방반을 생략하였던 것이다.

「가녀의」, 「혼례작의」, 「가례작의」와 같은 사가의 혼례 문헌기록에서도 사방반은 등장하지 않는다. ‘사방반’은 왕실 혼례에서는 중요하게 사용되었지만, 사가에서는 특별히 쓰임으로 규정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향좌아 (香佐兒)

문헌에서 향좌아는 香佐兒, 香座兒, 香坐兒 등으로 등장한다. 향을 올려두는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고려 시대 향을 올려두는 용도는 ‘향안(香案)’만이 등장하고 향좌아는 나타나지 않는다. 조선 기록 중에서는 『의궤』의 현전 기록 중 1608년(광해군 즉위년) 『선조국장도감지방의궤』(奎14861의2)에서 ‘향좌아(香坐兒)’가 처음 등장하고,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인조 대에 향좌아 명칭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왕실에서 향좌아는 왕의 일상 어좌 기물 중 하나이며, 흥례와 가례와 같은 의례기물에도 왕이 움직이는 곳에는 어디에나 배설되었다. ‘서방색 1년(書房

色一年) 진상품목' 즉 임금의 일상생활 기물로서 어좌를 마련하는데 쓰기 위한 기물 중에 향좌아가 포함되며, '원릉행행과 대례시(遠陵幸行及大禮時) 진상하는 품목'처럼 왕의 원행을 떠날때도 향좌아를 구비하였다. 그외 '임금이 주관하는 각종 의례'와 같은 국가의 특별한 행사에도 역시 향좌아가 배설되었다.³¹⁾

향좌아는 왕과 가까운 자리에 위치하는 만큼, 화려하게 제작되었다.(도판 6) 원형이나 4각 혹은 6각형의 판을 만들고 그 아래에는 허아(虛兒) 즉 상판을 받치고 다리를 결속하는 구조물을 만들었으며, 곡선형의 다리와 화려한 풍혈 장식을 결구하였다. 조선 후기 민간의 일반적인 가구와는 다른 특별한 유형의 왕실가구이다. 그리고 향좌아에는 '왜주홍'이나 '당주홍'과 같은 값비싼 수입안료를 사용한 칠로 장식하여 일반가구와는 완전히 구별되었다.³²⁾ <도판 6> 은 채색 그림으로 확인되는 향좌아의 형태이다.

31) 『택지지』, 『국혼정례』, 『상방정례』, 『원행정례』, 『원행배설정례』, 『만기요람』 등 참조.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32) 향좌아는 사각으로 만들고 1층 각면에 허아(상면 아래로 잘록하게 들어가는 구조물로서, 장식판을 만들어둔 곳인데 서랍공간처럼 보이거나 서랍없이 빈공간을 만듦)를 만들로, 4귀통이에는 동자주 형태로 난간을 만들고, 난간 아래는 운각을 한다. 왜주홍칠을 한다. 사방의 너비는 9촌 2분으로 하고, 다리 높이는 1척 8촌으로 한다. 허아와 복판은 아울러서 높이가 4촌 5분이다. 예기척을 사용한다.

(『순조순원후가례도감의궤』(奎13122-v.1-2), “香佐兒, 四隅一層各層虛兒, 各隅童子欄干, 欄干下雲刻, 倭朱紅漆. 方廣九寸二分, 足高一尺八寸, 虛兒及腹板竝高四寸五分, 用禮器尺”

〈도판 6〉 왕실과 사가의 기록에 등장하는 향좌아 도설

왕실			
①1732년 『인조장릉 천릉도감의궤』 (六面)향좌아	②1802년 『순조순원왕후 가례도감의궤』 (四面)향좌아	③1821년 『효의왕후 국장도감의궤』 (원형)향좌아	④1827년 『자경전 진작정례의궤』 (六面)향좌아
			
사가(私家)			
⑤18-19세기 《회혼례도첩》 (원형) 향좌아	⑥1848년 《요화노인회근첩》 예일 바이네케도서관 (六面)향좌아	⑦조선, 김홍도 모당홍이상공의 일생 국립중앙박물관 (덕수5768) (원형) 향좌아	⑧조선 평생도 국립중앙박물관 (덕수1681) (원형) 향좌아
			

향좌아의 용도는 왕실 『의궤』를 통해서 확인된다. 향꽃이와 옥동자를 올려두었던 용도였는데, 향꽃이와 옥동자를 하나의 향좌아에 올리기도 했지만 각각의 향좌아에 올려두기도 하였다. 1638년 『인조장렬후가례도감의궤』(奎13061)에 향좌아는 옥동자와 향꽃이를 모두 올려두는 용도로 기록되어 있다.³³⁾ 그런데 1802년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궤』(奎13122-v.1-2)에 의하면, “(옥동자 한쌍과) 왜주홍칠 향좌아 1쌍을 쓴다. 그리고 또 한쌍(향좌아)을 만들어 향꽃이를 놓는데 사용한다.”³⁴⁾ 라고 하여, 옥동자(玉童子)를 각각 한 개씩 놓은 향좌아 1쌍과 향꽃이(香串之)를 각각 한 개씩 놓는 향좌아 1쌍을 마련했던 것을 볼 수 있다.

향좌아는 동퇴가구 중의 하나로서, 교배례와 동퇴가 열리는 장소에 배치되는데, 한쌍 씩 제작된 것은 신랑석과 신부석 쪽에 각각 한 개씩 놓기 위함이다. 여기에서 옥동자는 향을 들고 있는 용도로 추정된다.

사가 혼례에서도 향을 두는 가구를 설치했고, ‘탁’ 혹은 ‘향좌아’로 불렸다.

이익, 「가녀의」

지금 풍속에 옥으로 깎은 동자로 향을 받들어서 탁에 올려 남쪽과 북쪽에 진설한다.

안정복, 「혼례작의」

옥동자 한 쌍이 있다. 향을 들고 향좌아 위에 올려둔다. 향좌아는 남북으로 나누어 설치하는데, 두지 말아야 할 물건이다. 그리고 동자의 생김은 진실로 요망하여 모두 마땅히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³⁵⁾

33) 『인조장렬후가례도감의궤』(奎13061), “옥동자와 향꽃이를 갖춘 주홍 향좌아 1쌍(朱紅香座兒壹雙玉童子香串之各具)”

34) 『인조장렬후가례도감의궤』(奎13061), “倭朱紅漆香佐兒一雙。又一雙以香串之所安次。”

35) 「가녀의」, “今俗, 用玉刻童子奉香, 設於卓上, 南北2. 形貌象人, 奢而近妖, 不可用。” 「혼례작의」, “又有玉刻童子一雙。奉香設於香座兒上。分置南北香座兒爲禁物。童子形

왕실뿐 아니라 사가 혼례에서도 ‘향좌아’가 혼례용 가구로 쓰였으며, 향을 들고 있는 옥동자를 두는 용도로 1쌍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회혼례도첩》에 2개의 향좌아가 그려져 있고, 그 위에 옥동자는 없지만 향꽃이가 그려져 있다. 그림 속 향좌아 윗면은 원형이고, 그 아래에 구름무늬 조각[雲刻]을 한 곡선형 다리 4개가 보인다. 붉은 칠 장식과 곡선형 다리는 의례용 가구로서 일반가구와 다른 화려함이 강조되어 있다.

왕실 사용 향좌아는 칠로서 사용자 신분에 따른 위계를 표현하였다. 왕의 경우 왜주홍칠을 하고 왕세자 이하에는 흑칠이거나 혹은 질은 떨어지는 용단칠(龍丹漆)을 하였다. 【표 6】~【표 7】 위계를 따진다면, 《회혼례도첩》의 향좌아에 사용된 칠은 붉은 색이지만 질이 떨어지는 붉은 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붉은 칠 중에서도 질이 떨어지는 ‘주흑잡칠’은 사대부에게도 허용되었던 칠이었기 때문이다.³⁶⁾

<도판 6>의 『의례』와 조선시대 <평생도>에 등장하는 향좌아의 형태를 보면, 윗판 형태가 사면(四面)인 ‘사면향좌아’와 육면(六面)인 ‘육면향좌아’ 혹은 원형인 경우로 나뉜다. 사가의 것은 원형과 육각형을 볼 수 있다. 왕실과 사가의 향좌아 형태 유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판면 아래 바로 붙는 ‘허아(虛兒)’의 구조물이 명확하게 보이거나 아니더라도 그 부분을 잘록한 형태로 만든 점이 동일하다. 두번째는 왕실의 향좌아를 보면, 다리의 윗부분 혹은 풍혈에 운문(雲紋) 조각 장식이 강조되었는데, 사가 향좌아 중에 특히 《회혼례도첩》의 향좌아의 다리 부분에는 구름무늬 표현이 두드러진다. 세번째는 다리 형태가 모두 곡선형으로 직선전인 조선의 일반 가구형태와는 구별된다. 네번째는 모두 붉은 칠을 쓴 점이다.

용도를 보면, 《회혼례도첩》의 것은 왕실의 예와 마찬가지로 향을 올려두는 가구로 사용되었다. 1848년 《요화노인회근첩》에는 향을 들고 있는 옥동

貌象人。誠近妖妄。皆宜不用。”

36) 『조선왕조실록』 1616년(광해 8년) 4월 23일. “床卓等, 御用朱墨正漆, 公家行用則用燐造朱紅及雜黑漆, 士大夫亦許用朱黑雜漆, 庶人則只許用瀝靑等漆, 一切永爲恒式。”

자 1쌍을 올려두는 용도로 ‘육면향좌아’가 그려졌다(도판6-⑥). 그런데 그의 조선 후기 <평생도>에서 향좌아 형태의 가구에 ‘꽃을 꽂은 화준’을 올려두는 용도도 보인다. 향좌아 형태의 가구가 민간에게 퍼지면서 다양한 쓰임으로 활용도가 높아졌던 것으로 추정된다(도판 6-⑦,⑧).

《회혼례도첩》에 혼례 의례용 가구로 등장하는 ‘향좌아’는 왕실의 향좌아와 형태적 특징과 용도가 동일하였다. 《회혼례도첩》을 통해, 사가에서 왕실의 혼례용 가구를 차용하여 활용했던 가구로 ‘향좌아’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Ⅳ. 맺음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회혼례도첩》(덕수6375)은 사가의 혼례 장면을 시각적으로 구체화 시켜준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이익(1629~1690)의 『성호사설』 「가녀의(嫁女儀)」, 「취부의(娶婦儀)」, 안정복(1712~1791)의 『순암집』 「혼례작의(婚禮酌宜)」, 정약용(1762~1836)의 『여유당전서』 「가례작의(嘉禮酌宜)」의 18~19세기 사가 혼례 기록과 그림의 묘사가 일치하고 있어서 더욱 주목된다. 《회혼례도첩》은 회혼례로서 ‘초혼을 재현하는 장면’의 그림이지만, 초혼을 기록한 문헌 내용과 비교할 때 초혼을 충실하게 다시 치러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사가(私家)에서 쓴 혼례용 가구의 실증적 파악이 가능하였다. 지금까지 사가의 혼례용 가구에 관한 것은 일부 전하는 유물에 한정될 뿐, 그 쓰임과 명칭,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확인할 수 없었다.

논문에서 이익 등의 사가 혼례 기록서를 근거로 하여 《회혼례도첩》의 기록화적인 혼례장면을 해석함으로써, 사가 혼례의 상세한 의주와 실제 상황 속에 배설된 가구의 실증적 분석을 제시하였다. 특히 《회혼례도첩》의 동퇴 장면에 등장하는 찬안상(饌案床)과 향좌아(香佐兒)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는

데, 그 형태적 특징과 쓰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왕실의 풍부한 혼례기록을 비교 자료로 삼아 검토하였다. 왕실에서 동뢰연을 위해 마련했던 혼례 가구에 대해, 왕에서부터 옹주에 이르기까지 각 신분의 혼례 가구의 규모와 종류를 살펴봄으로써, 전통 왕실 혼례가구의 전모를 토대로 《회혼례도첩》의 사가 혼례용 가구의 특징을 면밀히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회혼례도첩》의 혼례장면이 절차 중 무엇을 연출하고 있는지 확인하였고, 그 공간 안에 배치된 찬안상과 주변의 4개의 작은 소반 그리고 향좌아의 쓰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가 혼례에서 사용된 찬안상과 향좌아의 특징적 요소를 도출해 내었다.

《회혼례도첩》의 혼례장면은 ‘전안’, ‘교배·동뢰’의 2장면으로서, 신랑과 신부가 처음 만날 때 치르는 혼례의식이다. 본문에서 국가 의례서와 사가 혼례기록서를 살펴, 이 2장면이 혼례 중 가장 핵심적인 절차임을 확인하였다. 혼례 장면에서 등장하는 가구 중, 특히 ‘교배·동뢰’의 찬안상 곁에 위치한 4개의 소반은 기록을 통해, 동뢰에서 밥과 술을 고수례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찬안상과 향좌아는 왕실 혼례용 가구의 형태를 그대로 차용하면서도 당시 시속(時俗)에 따른 변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왕실 동뢰 가구와 비교할 때 그 종류와 수량을 축소시켰고, 찬안상은 신랑측과 신부측에 각각 하나씩 배설한다는 규범을 약소화하여 신랑과 신부 중앙에 하나만 놓았으며, 찬안상 위에 놓는 사방반도 생략하는 변화를 보였다. 찬안상을 씌운 상건(床巾)스타일은 조선말까지 유행했던 유행 스타일이었으며, 그 시작은 훨씬 앞선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향좌아는 사가에서 사용된 일반 가구와 명확히 구분되는 곡선형의 다리가 달린 붉은 색의 가구로서 왕실 스타일의 혼례용 가구를 모델로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회혼례도첩》은 당시 시속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기록화임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사가 혼례 가구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했던 연구로서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관찬사료

『조선왕조실록』

『국조오례의』

『탁지지』

『국혼정례』

『상방정례』

『원행정례』,

『원행배설정례』,

『만기요람』

『풍정도감의궤(豐呈都監儀軌)』(1630), 외규장각의궤, 국립중앙박물관.

『인조장렬후가례도감의궤(仁祖莊烈后嘉禮都監儀軌)』(1638), <奎 13061>.

『인조장릉천릉도감의궤(仁祖長陵遷陵都監儀軌)』(1732), <奎 14597>.

『현종명성후가례도감의궤(顯宗明聖后嘉禮都監儀軌)』, (1652), <奎 13071>.

『단의빈예장도감의궤(端懿嬪禮葬都監儀軌)』(1718), <奎13572><奎13573>.

『정성왕후국장도감도청의궤(貞聖王后國葬都監儀軌)』(1757), <奎13589-v.1-2>.

『영조국장도감도청의궤(英祖國葬都監儀軌)』(1776), <奎13581-v.1-2>.

『정조효의후가례청의궤(正祖孝懿王后嘉禮廳儀軌)』(1762), <奎13114-v.1-2>.

『정조국장도감의궤(正祖國葬都監儀軌)』(1800), <奎13634-v.1-4>.

『효의왕후국장도감의궤(孝懿王后國葬都監儀軌)』(1821), <奎 13649>.

『자경전진작정례의궤(慈慶殿進爵整禮儀軌)』(1827), <奎 14535>.

『숙종인경후가례도감왕세자가례시도청의궤(肅宗仁敬后嘉禮都監王世子嘉禮時都廳儀軌)』(1671), <奎 13078>.

『숙종인현후가례도감의궤(肅宗仁仁顯禮都監儀軌)』(1681), <奎 13084>.

『숙종인원후가례도감의궤(肅宗仁元后禮都監儀軌)』(1702), <奎13089>.

『문효세자예장도감의궤(文孝世子禮葬都監儀軌)』(1786), <奎 13921>.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궤(純祖純元王后嘉禮都監儀軌)』(1802), <奎 13122>.

- 『연잉군관례등록(延昞君冠禮膾錄)』(1712), 장서각 <K2-2661>.
『화길옹주가례등록(和吉翁主嘉禮膾錄)』(1765), 장서각<K2-2730>.
『청연군주가례등록(淸衍郡主嘉禮膾錄)』(1765), 장서각<K2-2727>.
『은언군, 은신군 혼례의궤(恩彦君冠婚禮儀軌)』(1767), 장서각<K2-2702>.
『청근현주가례의궤(淸瑾縣主嘉禮儀軌)』(1772), 장서각 <K2-2725>.
『숙선옹주가례등록(淑善翁主嘉禮膾錄)』(1804), 장서각 <K2-2651>.
『명온공주가례등록(明溫公主嘉禮膾錄)』(1823), 장서각 <K2-2640>.
『복온공주가례등록(福溫公主嘉禮膾錄)』(1830), 장서각 <K2-2643>.

* 사찬사료

- 이익, 『성호전집』 48권 잡저 「가녀의」, 「취부의」.
안정복, 『순암집』 권 14, 잡저, 「혼례작의」.
정약용, 『여유당전서』 제 3집, 예집 제 23권 「가례작의」.
『역주 가례언해(家禮諺解)』, 「가례언해 제 4권 혼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4.
『증보사례편람』, 李緯 著, 황필수 편술, 문옥표·이충구 역, 『증보사례편람』,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 논저

- 김미라, 「왜주홍칠의 수입과 활용」, 『석당논총』 85, 2023.
김연수, 「18세기 성호학파의 혼례관—이익의 「嫁女儀」와 안정복의 「婚禮酌宜」를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92, 2020.
노인숙, 『가례와 한국의 예학』, 문사철, 2020.
박정혜, 혼인한 지 60년, 다시 치르는 혼례, 『조선시대 사가기록화, 옛그림에 담긴 조선 양반가의 특별한 순간들』, 한국학중앙연구원, 2022.
백주연, 「조선 초기 王室婚禮의 정비와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95, 2020.
윤효정, 「《회혼례도첩》을 통해 본 헌수 의식과 수상(壽觴) 쥘(觥)」,

『석당논총』 87, 2023.

이상아, 「茶山丁若鏞의 『嘉禮酌儀』譯註」,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이종묵, 「회혼을 기념하는 잔치, 중퇴연(重牢宴)」, 『문헌과 해석』 46, 2009

장병인, 『조선 왕실의 혼례』, 조선왕실문화총서 7, 민속원, 2017.

한국인문고전연구소편, 『국역 의례-관례 혼례편』, 한국인문고전연구소, 2021.

* 자료집

「회혼례도첩의 문화사적이해」 발표자료집, 국립대구박물관, 2022.

*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서울대규장각 <https://kyu.snu.ac.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디지털장서각 <https://jsg.aks.ac.kr/>

Abstract

THE WEDDING TABLES OF THE JOSEON ARISTOCRATS IN
THE 《60TH ANNIVERSARY PAINTING
BOOK(《回婚禮圖牒》)》, THE COLLECT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KIM MIRA (KIM, MI RA)

《60th Anniversary Painting Book(《回婚禮圖牒》)》 began to draw attention through Park Jung-hye's book published in 2022 and the National Daegu Museum Academic Symposium(2022). Painting Book is highly regarded as a historical document in that it is a detailed visualization of 'Joseon's wedding ceremony of a general family' betwee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This paper examines the 'wedding ritual furniture of the general family', focusing on 'furniture appearing in the wedding scene' in 《60th Anniversary Painting Book》

Until now, studies on wedding procedures, changes, and wedding objects have been conducted on royal weddings, focusing on national ceremonies and 『Uigwe(A record of the royal family's ceremonies)』. On the other hand, research on Joseon's wedding ceremony of a general family[Saga(私家)], especially wedding furniture, was limited to relics that were delivered. So This is making it difficult to grasp the substance, such as the name

and timing of production.

‘Wedding ritual furniture of the general family’ in 《60th Anniversary Painting Book》 is Table such as ‘Wedding Table for food(饌案床) and Furniture where the scent is located(香佐兒)’.

What we want to understand in this study is the name and shape characteristics of these two furniture in the wedding the scene. To this end, based on the wedding records recorded by 『Uigwe』, 『Deungrok(瞻錄)』, Yi Ik(李穡:1681~1763), Jeong Yak-yong(丁若鏞: 1762년~1836), and Ahn Jung-bok(安鼎福: 1712~1791). We first looked at what procedure the wedding scene of 《60th Anniversary Painting Book》.

Subsequently, the forms of ‘Chan An-sang(饌案床)’ and ‘Hyang-Jwa(香佐兒)’ were found and confirmed in the record, and through historical analysis of wedding furniture of the royal family and 《60th Anniversary Painting Book》, the use and specific forms of ‘Chan An-sang’ and ‘Hyang-Jwa’ as ‘households for the general family’ were investigated.

Key Words : Joseon wedding ceremony(婚禮), Furniture used for the Joseon wedding ceremony(婚禮 家具), Joseon Traditional Wedding Table(饌案床), Furniture where the scent is located(香佐兒), A low, small dining table(小盤), Wooden Furniture(木家具), Woodencrafts(木工藝), 60th Anniversary Painting Book, (《回婚禮圖牒》)